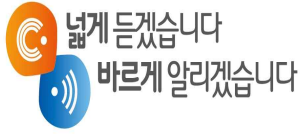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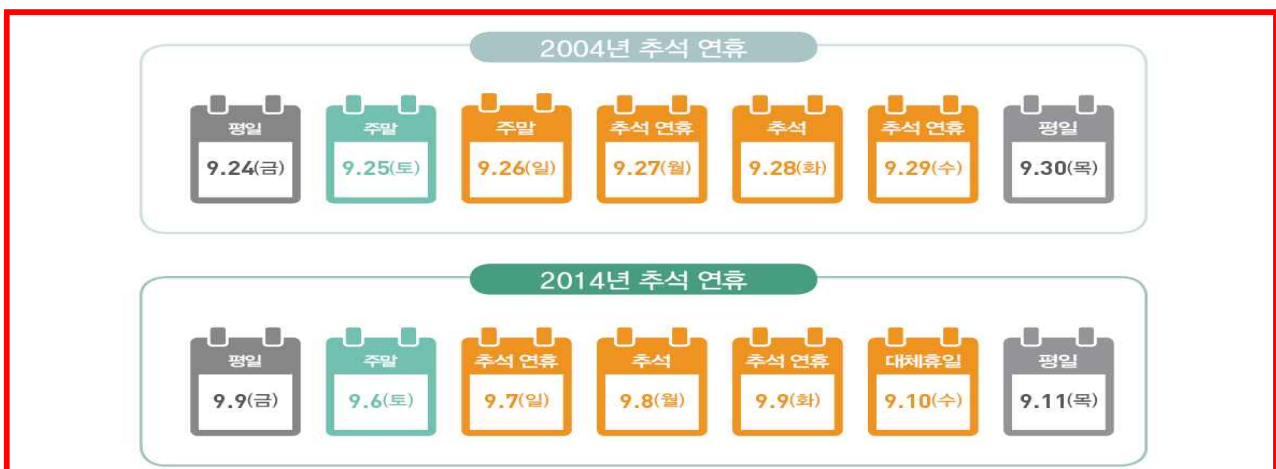
 <b>국토교통부</b> Ministry of Land, Infrastructure and Transport	<b>보 도 자 료</b>		
	배포 일시	2014. 9. 4(목) 총 8매(본문 6, 붙임 2)	
담당 부서 교통정책조정과	담당 자	• 과장 김용석, 사무관 이성주, 주무관 유용식 • ☎ (044)201-3786, 3793	
보 도 일 시	2014년 9월 5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9. 4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## “추석 고향체류 2일 내로 단축, 역귀성·여행 증가” 최근 10년 명절 풍속 변화…인구구조·인식변화·SOC확충 등 원인

- 지난 10년간 추석명절에는 3박4일 이상의 장기체류 비율은 감소하고, 당일·1박2일 단기체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. 또 명절 기간에 역귀성하거나 여행을 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. 이는 인구구조, 인식변화, SOC확충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서승환)는 추석 연휴 귀성객들의 통행특성 변화를 10년 전(2004)과 비교·분석한 결과(연휴 일수 동일), 1박2일 체류 비율이 7.1%(25.1→32.2) 정도 크게 증가하였으며, 명절기간 내 여행(0.7→2.3, 1.6%↑), 수도권 내 이동(18.3→23.2, 4.9%↑) 및 승용차 이용(76.0 → 84.4, 8.4%↑) 비율도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.

2004년 및 2014년 추석 연휴 특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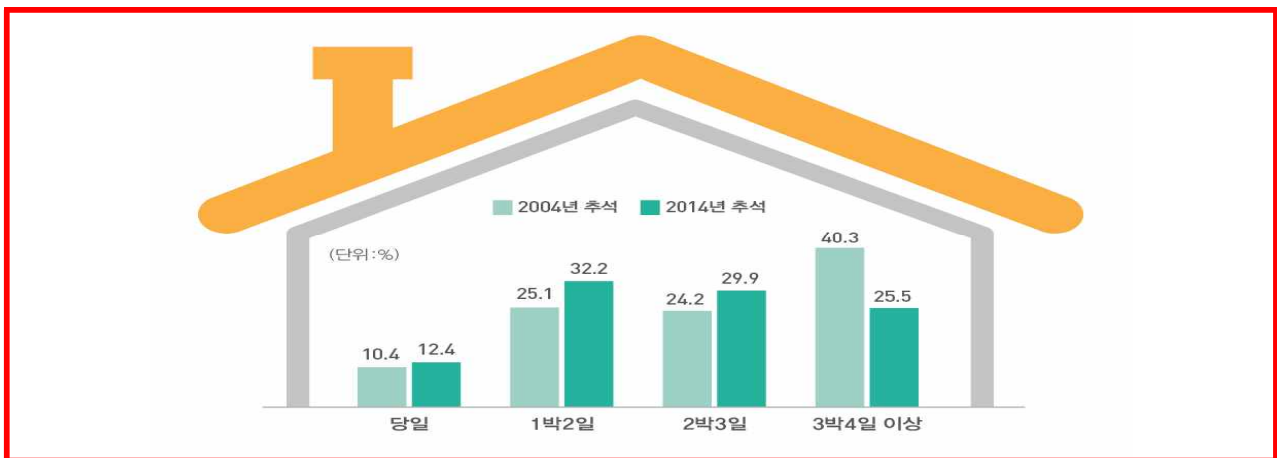


- 또한, 추석 연휴 고속도로 주요구간 최대 소요시간은 지속적인 교통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10년 전보다 최대 3시간 이상 단축되어, 도로정체는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□ 고향에 오래 머무는 시간 줄어들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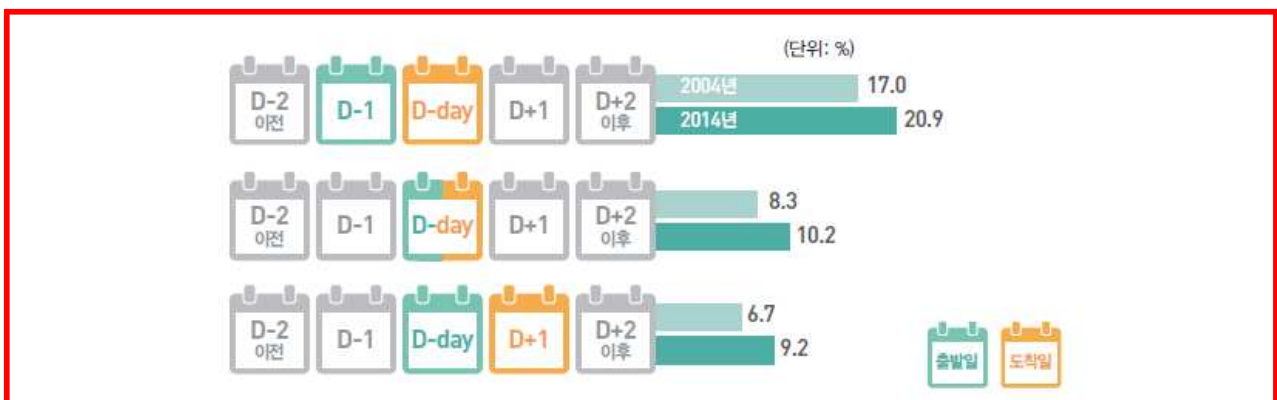
- (체류일수) 지난 10년간 3박4일 이상 길게 체류하는 비율이 14.8%(40.3%→25.5%) 감소한 반면, 당일 귀성·귀경은 2.0%(10.4→12.4), 1박2일은 7.1%(25.1→32.2), 2박3일은 5.7%(24.2→29.9) 각각 증가하였다.

< 추석연휴기간 체류일수 변화 >



- (출발·도착일) 추석을 포함한 2일 이내 귀성·귀경을 하는 비율이 8.3%(32.0%→40.3%) 증가하였으며, 추석 당일 귀성·귀경을 하는 경우도 1.9%(8.3%→10.2%) 증가하였다.

< 추석연휴기간 출발·도착일 변화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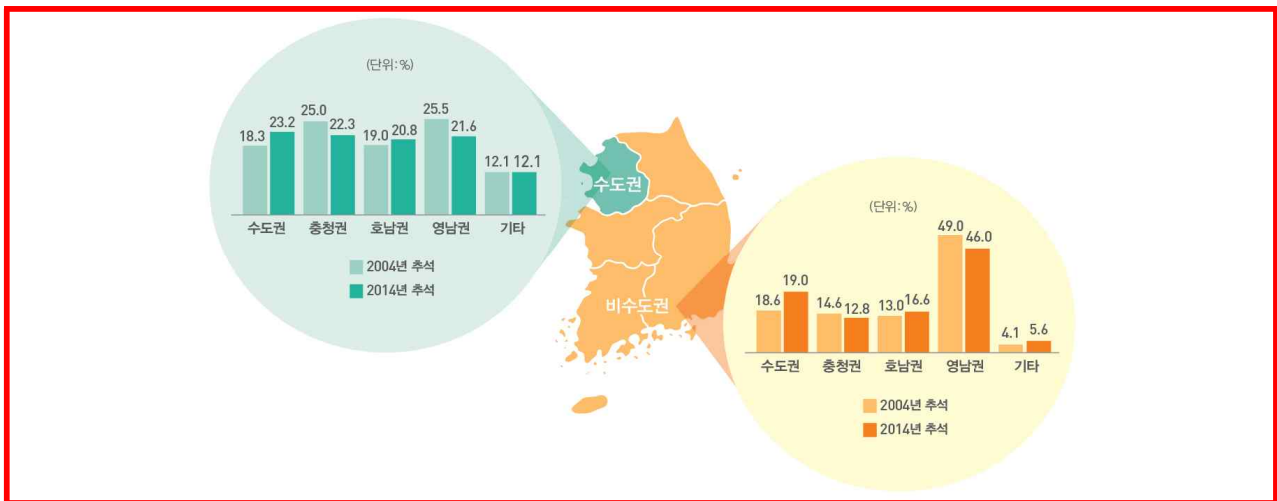


- 이는 지난 10년간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과 비수도권 거주 부모 세대의 감소로 인한 중·장거리 이동인원의 상대적 감소와 명절에 대한 인식 변화 등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.

□ 수도권 내부 귀성 비율 증가

- 수도권으로의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인해 귀성비율은 수도권 내부이동이 4.9%(18.3%→23.2%) 증가 하였으며, 비수도권은 수도권과 호남권으로 귀성하는 비율이 소폭 증가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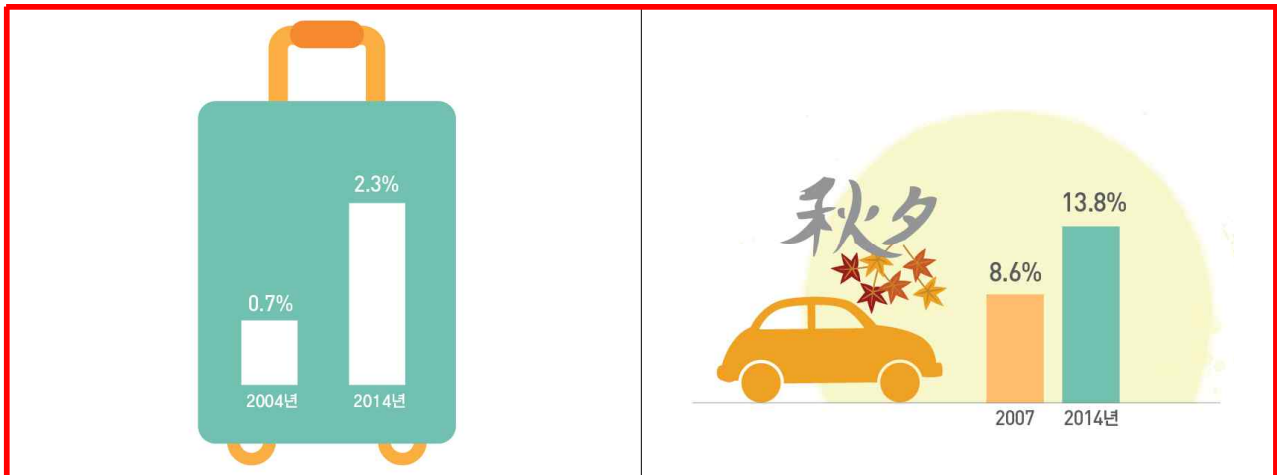
< 추석연휴기간 귀성지역 변화 비교 >



□ 여행 및 역귀성 비율 증가

- 추석연휴에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가구는 약 3배(0.7%→2.3%), 역귀성 하는 비율은 약 2배(8.6%→13.8%) 각각 증가하였다.

< 추석연휴기간 여행 계획비율 변화 > < 추석연휴기간 역귀성 비율 변화 >



□ 자가용 이용률 증가, 반면에 최대 소요시간은 감소

- (자가용 승용차 이용률) 경제성장으로 인한 자가용 승용차 보유 확대로 자가용 이용률은 8.4%(76.0→84.4) 증가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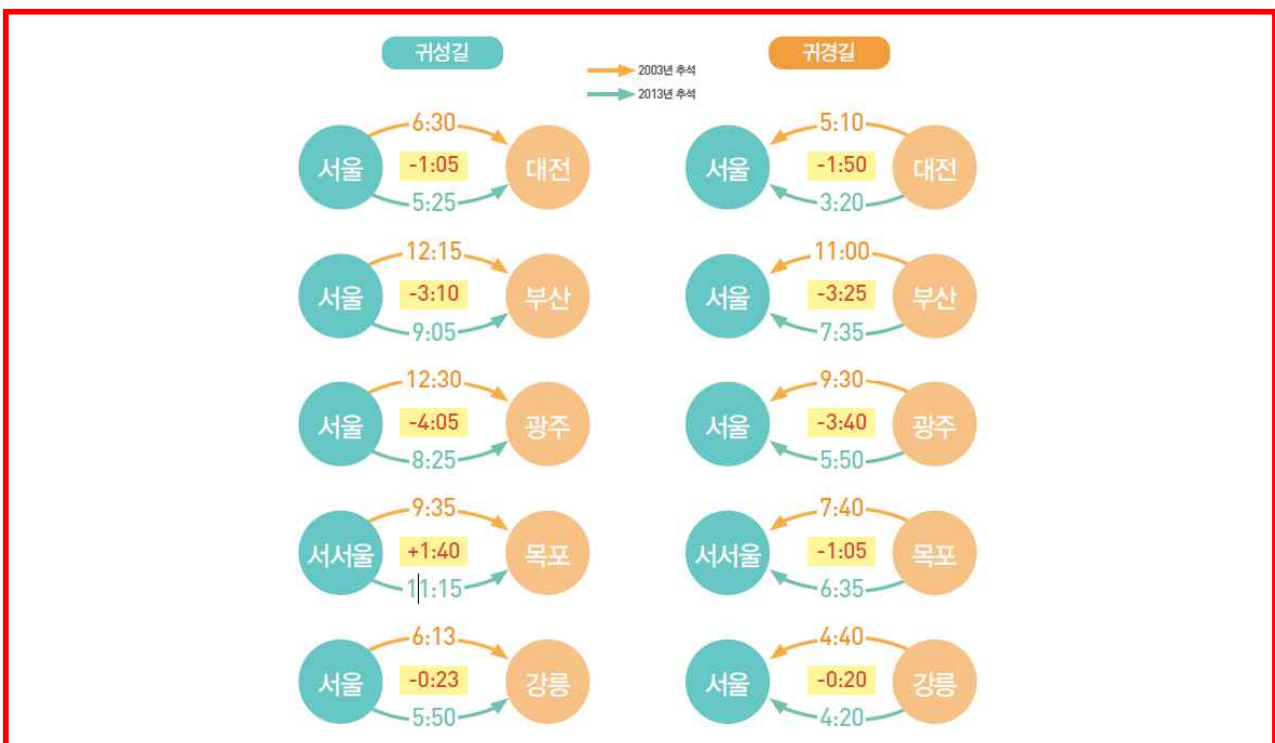
< 추석연휴기간 자가용 승용차 이용률 >



- (최대 소요시간 단축) 최대 소요 예상시간은 ①인구 증가로 인한 귀성인원 증가 ②자가용 승용차 이용비율의 증가 등의 통행 시간 증가요인이 있었음에도 주요 구간의 최대 예상 통행시간이 대부분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으며,

- 특히, 서울~부산 간 최대 예상 소요시간(귀성)은 3시간(12:15→9:05) 이상, 서울~광주는 4시간(12:30→8:25) 이상 단축되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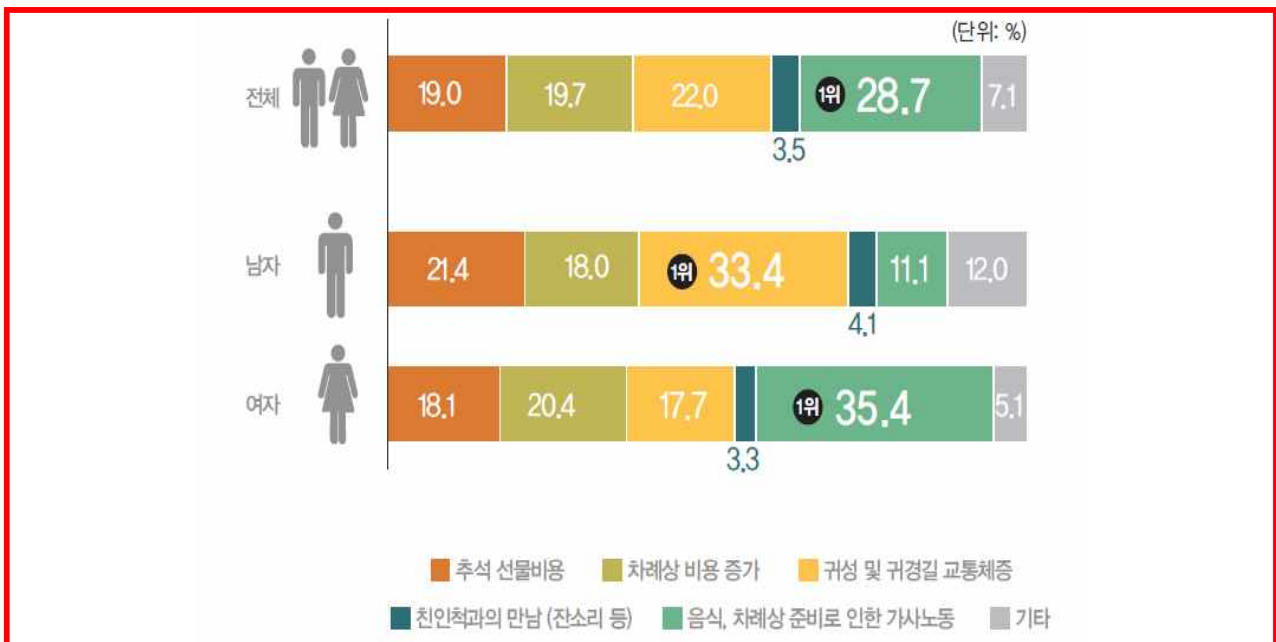
< 추석연휴기간 최대 소요시간 변화 비교 >



- 이는 SOC 사업의 확충, IT 기술 발달로 인한 교통정보제공 향상, 수도권 내부 귀성 비율 상승, 정부의 지속적인 특별교통대책 수립 등으로 상쇄되는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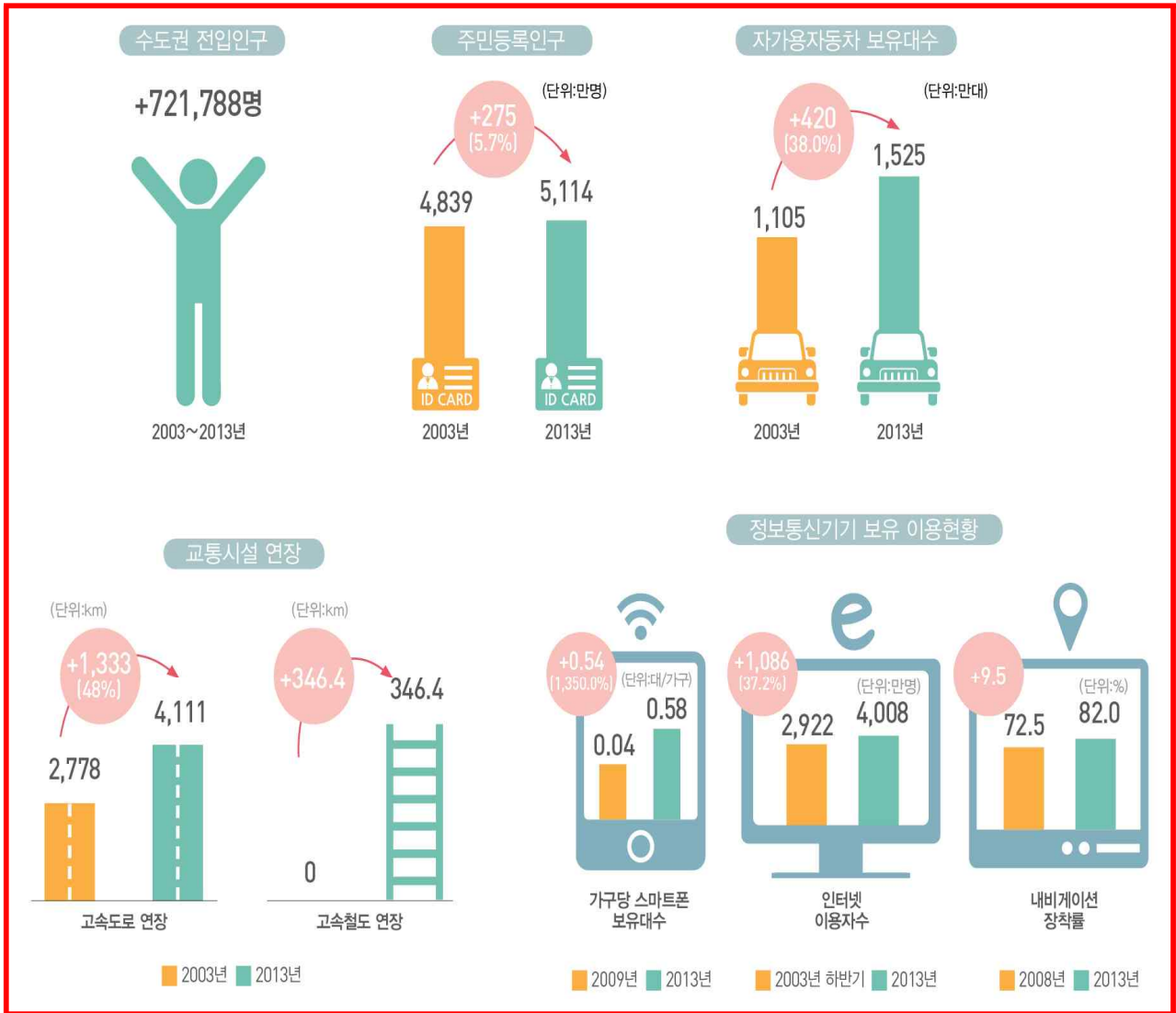
○ 또한, 금번 추석 연휴기간 염려되는 점에 대한 설문에서 남성의 경우에는 '귀성 및 귀경길 교통체증'(33.4%), '추석 선물비용'(21.4%) 순으로 나타났으며, 여성은 '음식차리기 등 가사노동'(35.4%), '차례상 비용 증가'(20.4%) 순으로 조사되는 등, 남·여간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<추석 연휴기간 염려되는 점>



□ 국토교통부는 이번 추석 연휴 통행분석결과를 기초로 고향에 머무는 기간 단축, 추석 포함 2일 이내 귀성·귀경 증가, 수도권 교통수요 집중 등 변화하는 추석 명절 통행실태를 향후 특별교통대책에 반영하는 등 국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.

< 관련 주요 사회경제지표 변화 비교 >



**OPEN**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 
교통정책조정과 이성주 사무관(044-201-378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추석 연휴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(한국교통연구원)

- 추석 연휴기간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추석 연휴 약 30일 전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추석 연휴기간의 통행수요를 분석·예측함

<추석 연휴 교통통행실태 조사개요>

구분	2004년 추석 사전조사	2014년 추석 사전조사
추석연휴 대책기간	9.24(금)~9.30(목); 7일간	9.5(금)~9.11(목); 7일간
조사표본	3,891세대(신뢰수준 95% 기준, 표본오차 ±1.60%)	9,000세대(신뢰수준 95% 기준, 표본오차 ±1.03%)
조사일시	2004년 8월 18일(수)~19일(목)(2일간)	2014년 8월 8일(금)~12일(화)(5일간)
조사대상	전국 단위 세대(16개 시·도)	전국 단위 세대(17개 시·도)
조사방법	전화인터뷰	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조사(CATI)
표본추출	세대수 비례 할당에 의한 층화 무작위 추출법	

구분	2003년	2013년	증감	증가율
수도권 전입인구 <sup>1)</sup> (명)	+721,788		-	-
주민등록인구 <sup>2)</sup> (만명)	4,839	5,114	+275	5.7
자가용자동차 보유대수 <sup>3)</sup> (만대)	1,105	1,525	+420	38.0
고속도로 연장 <sup>4)</sup> (km)	2,778	4,111	+1,333	48.0
고속철도 연장 <sup>5)</sup> (km)	0.0	346.4	+346.4	-
가구당 스마트폰 보유대수 <sup>6)</sup> (대/가구)	0.04 (2009년)	0.58	+0.54	1350.0
인터넷 이용자수 <sup>7)</sup> (만명)	2,922 (2003년 하반기)	4,008	+1,086	37.2
내비게이션 장착률 <sup>8)</sup> (%)	72.5 (2008년)	82.0	+9.5	-

\* 자료: 1) 통계청, 국내인구이동통계(순이동자수)  
 2) 안전행정부, 주민등록인구통계  
 3) 국토교통부, 자동차등록현황보고  
 4) 국토교통부, 자동차등록현황보고  
 5) 한국철도공사, 철도통계연보  
 6) 방송통신위원회,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 
 7) 인터넷 이용자수 - 미래창조과학부, 인터넷이용실태조사  
 8) 내비게이션 장착률 - 마케팅인사이트, 자동차 품질 및 고객만족조사

\* 주: 전입인구 -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연도별 통계값을 합한 수치임  
 자가용자동차 - 자가용 승용자동차 + 15인승 미만 자가용승합차